

한국청년방일단 제 1 단 (초빙) 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 2022 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 대학원생, 사회인 등의 청년을 초빙하여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호스트 타운 시찰’이라는 주제 아래, 강연 청강, 각종 시찰, 학교방문, 동세대교류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한일 간의 상호 이해 촉진과 신뢰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온라인) : 한국의 대학생 · 대학원생 · 직장인 등 19 명

초빙 (오프라인) : 한국의 대학생 · 대학원생 · 직장인 등 17 명

【방문지】

도쿄도 (東京都), 교토부 교탄고시 (京都府京丹後市)

2. 일정

사전학습 (온라인)

9 월 16 일 (금) 교토부 교탄고시 및 방문처에 대한 설명 · 의견 교환

일본 현지 프로그램

9 월 23 일 (금) 나리타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9 월 24 일 (토) 일본 청년들과 상시 동세대 교류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관련 시설 (국립경기장, 일본 올림픽 박물관) 시찰, 그룹별 토의

9 월 25 일 (일) 일본 청년들과 동세대 교류

‘일본의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 각각의 활용법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도내 현장 학습

9 월 26 일 (월) 외무성 예방 및 강의 ‘최근 한일관계’ 청강,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시찰, 교토시로 이동

9 월 27 일 (화) 교토시에서 교탄고시로 이동, 교탄고시청 예방 및 강의 ‘교탄고시 소개와 한국 호스트타운이 된 계기’ 청강, 의견 교환, 코토히키 하마 (해양쓰레기 대책) 시찰

9 월 28 일 (수) 교탄고시 구미하마 만 카누센터 시찰, 교토부립

탄고료쿠후고등학교 구미하마교 (한국 호스트 타운 결정으로 이어지는 카누 교류 고등학교) 방문, 의견 교환, 간사이국제공항으로 이동, 보고회 (방일성과 ·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9 월 29 일 (목) 간사이국제공항 출국

3. 프로그램 기록사진 (방문지 : 도쿄도, 교토부 교탄고시)

	
9 월 24 일 【시찰】 국립경기장	9 월 24 일 【교류 · 의견교환】 한일 동세대 그룹 별 토론
	
9 월 26 일 【예방 · 강의】 외무성	9 월 27 일 【예방 · 강의】 교탄고 (京丹後) 시청
	
9 월 28 일 【시찰】 교탄고시 구미하마만 (京丹後市久美浜灣) 카누 센터	9 월 28 일 【학교방문 · 의견교환】 교토부립 단교료쿠후 (京都府立丹後緑風) 고등학교

4. 참가자 소감 (발체)

◆ 한국 사회인

외국인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교탄고시를 방문하여, 교탄고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누를 통한 한국과의 교류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현지 고등학생과 교류하면서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고, 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양국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 한국 대학생

이번 프로그램 참가는, 다양한 기관 방문과 시찰, 또 유익한 강의들을 들으며 넓은 의미에서의 한일관계 (국가 간), 그리고 동세대 교류를 통해 작은 의미의 한일관계 (개인 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짚어가는 젊은 세대로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구축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외무성 예방과 강의, 교토부 교탄고시청에서의 시장님의 말씀과 현지 고등학생들과의 교류가 인상깊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이번 방일 프로그램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이 열렸던 국립경기장과 일본 올림픽 박물관 방문입니다. 2022 년 현재 시점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개최된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대회의 감동을 다시금 느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일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5. 일본 측 소감 (발체)

◆ 교탄고시 관계자

이때까지의 카누 교류나 호스트 타운 운영 등이 결실을 맺은 듯, 저희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탄고료쿠후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교류에서는, 동세대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를 기대합니다.

◆ 일본 측 동세대 교류단체 관계자

코로나의 영향으로 약 2 년만에 방일단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었고, 아이스 브레이킹, 토론, 국립경기장시찰 등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 년간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 중 콘텐츠 소비가 다인 사람도 많은 가운데, 이번 교류를 통해 코로나 이전에 서로의 나라를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를 이어 나가고 싶다고 느낀 2 일이었습니다.

6. 참가자의 대외 발신

 JKAF(대학생 방한단 동창 조직) 소속 청년들과의 교류 활동 소개: 토론 활동을 통해 공통으로 주어진 주제(포스트 코로나와 한일관계에 대하여)에 대해 한일 양국의 청년이 함께 의논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고 실천 방안을 모색함(코로나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차이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하나의 문화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결론 도출.)	 외무성은 한국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한일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외교관님의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본의 변화와 한일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한일관계에는 어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가지 귀여웠던 모먼트는 외교관님 때
한일동세대교류에 대한 발신 일본 청년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한일관계」라는 테마로 논의하여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차이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하나의 문화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외무성 예방과 강의에 대한 발신 외무성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한일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외교관님의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일본의 변화와 한일관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한일관계에는 어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토부립 단고료쿠후丹後綠風 고등학교 방문! 학생들과 함께 체육대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은 날씨 영향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한국문화에 좋아하고 관심있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로 인사도 준비해주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벅찼는지 눈물을 보이 기까지 해서 보는 나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다. 적극적으로 다가서지는 못했지만 일본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모습과 진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곁에 있는 것 만으로도 근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가 관계라는 큰 규모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의 작은 규모까지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만나 희망과 미래를 보게 되었어요. 저 또한 그분들 덕분에 좋은 친구들과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저도 제 자리에서 양국의 평화와 우호적 관계를 위해 힘쓰고 싶어요. 
교토부립단고료쿠후(京都市立丹後綠風) 고등학교에서의 교류에 대한 발신 한국문화를 좋아하고 관심있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로 인사도 준비해 주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벅찼는지 눈물을 보이 기까지 해서 보는 나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다. 적극적으로 다가서지는 못했지만 일본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모습과 진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곁에 있는 것 만으로도 근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방일단 전체 감상에 대한 발신 이번 방일단에 참석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하는 큰 규모에서 (외무성 분), 교탄고시 관계자 분, 일본 젊은이들 등, 사람과 사람 관계의 작은 규모까지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만나 희망과 미래를 보게 됐다. 이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저도 제 자리에서 양국의 평화와 우호적 관계를 위해 힘쓰고 싶다.

7. 보고회에서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본교 일어일문학과 후배 및 JENESYS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임. 과거 경험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번 방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물론, 온라인 방일단으로서의 활동도 함께 소개할 예정.(일본 외무성의 한일 교류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한 문화원리porter들의 이야기를 기사형식으로 작성, SNS발신할 예정입니다. 리포터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한일 교류에 대한 마음과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여행업이라는 직업을 가진 특성을 살려 JKAF분들과 같은 일본분들의 한국방문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 JENESYS2022 한국청년방일단으로 참여한 소감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애초에 문화원리porter에 대해 알게 된 계기와 리포터가 되려고 한 이유 등 리포터들의 이야기를 취재하여 한사람한사람 서로다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게재한다면 일본과 한일 교류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큰 울림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액션플랜의 발표 1 소속 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후배 및 JENESYS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임. 과거 경험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번 방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물론, 온라인 방일단으로서의 활동도 함께 소개할 예정. 일본 외무성의 한일교류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액션플랜의 발표 2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기사형식으로 작성, SNS 발신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한일 교류에 대한 마음과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여행업이라는 직업을 가진 특성을 살려 일본 분들의 한국방문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 JENESYS2022 한국청년방일단으로 참여한 소감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등,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하여 한사람 한사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게재한다면 일본과 한일 교류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큰 울림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